우리어문연구 77집 | 우리어문학회 | 2023. 09. 30. | 433-465면
DOI : http://dx.doi.org/10.15711/WR.77.0.13

한국 걸그룹 노랫말에 나타난 여성 화자의 주체성 변화에 대한 언어학적 탐색*

남 신 혜**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아이돌 세대별 걸그룹 노랫말에 나타난 여성 화자의 주체성 변화 양상을 언어학적으로 관찰하여 기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노랫말 말뭉치를 구축한 뒤 출현 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세대별 주요 내용어를 선별한 후, 해당 어휘들이 사용된 맥락을 화행 분석과 연어 분석의 방법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세대가 거듭하여 올수록 걸그룹 노랫말에 나타나는 여성 화자의 모습은 점차 주체적인 모습으로 진화하여 온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노랫말에 나타난 여성 화자의 모습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서, 문화콘텐츠의 내용 분석에 있어서 언어학적 분석의 결과가 유의미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사례로서 본 연구는 의의가 있다.

키워드 : 한국 걸그룹, 노랫말, 세대별 아이돌, 여성 화자 주체성, 말뭉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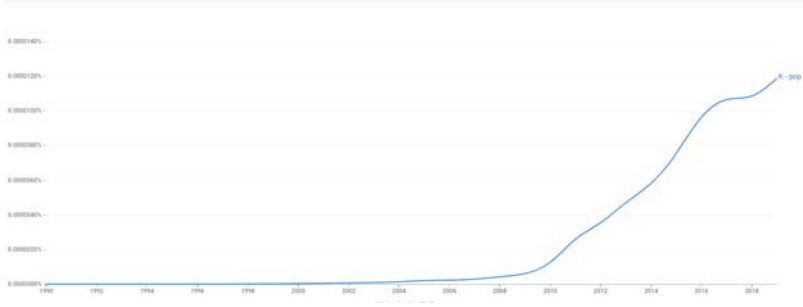
* 이 연구는 아모레퍼시픽재단의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1.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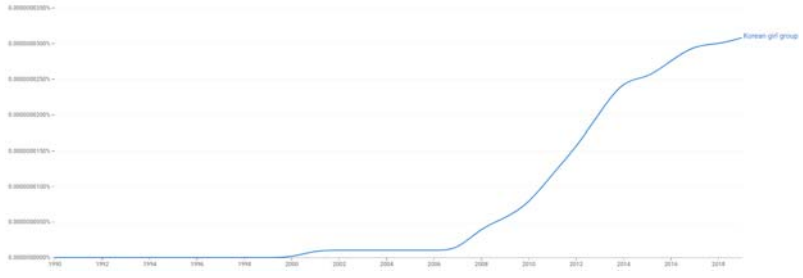
본 연구는 한국 대중가요 중 걸그룹의 노랫말에 나타난 여성의 주체성 변화 양상을 시기별로 분석 및 추적하여 언어학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1세대부터 3세대까지의 아이돌로 구분하여 해당 시기별 걸그룹의 노랫말로 구성된 말뭉치를 구축하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핵심어를 도출하고 도출된 핵심어들의 사용 맥락을 분석한다. 사용 맥락은 화행의 측면에서, 그리고 함께 사용된 연어의 측면에서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걸그룹 노랫말의 주요 내용 및 여성 화자의 주체성 변화 양상을 추적하여 기술한다.

본 연구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케이팝으로 명명되는 한국 대중음악 위상의 세계적인 상승과 걸그룹의 문화적 영향력 확대라는 사회적 배경에서, 한국 걸그룹은 한국 문화 현상에 대한 주요 담론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국내와 중국, 일본을 위시한 아시아 내에서 주된 영향력을 발휘하였던 1세대 및 2세대 아이돌과 비교할 때 3세대 아이돌은 아시아를 넘어서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전세계를 무대로 하여 그 영향력을 확장하였다. 특히 이러한 경향성은 남자 아이돌 그룹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블랙핑크를 위시한 여러 여자 아이돌 그룹, 즉 이른바 '걸그룹'에게도 해당된다는 점이 3세대 아이돌이 가진 영향력의 특징이기도 하다. 실제로 구글 엔그램뷰어에서 'K-pop'과 'Korean girl group'을 검색해 보았을 때,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두 검색어 모두 대략 2010년을 전후하여 그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그 이전과 비교가 어려울 만큼 높은 빈도수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구글 엔그램뷰어에서 'K-pop'의 빈도 추이(1990년-2019년)



〈그림 2〉 구글 엔그램뷰어에서 'Korean girl group'의 빈도 추이(1990년-2019년)

둘째, 사회적 주체로서 여성의 목소리 내기에 대한 담론이 확산되어 가는 현재의 시대적 배경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시의성을 가진다. 예컨대 1999년 핑클의 〈영원한 사랑〉 노랫말 속 화자는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을 약속해' 달라고 요청하는 소녀로 표상화되었지만 2018년 마마무의 〈너나 해〉는 '넌 너나 해', '내 멋대로 할래'를 당당하게 선언하는 주체적 여성의 언어를 전달한다. 이와 같이 걸그룹 노랫말 속 화자가 수동적인 소녀의 이미지에서 주체적인 여성의 이미지로 변화해 나가는 양상을 언어학적 분석을 통해 객관적으로 포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고려할 때, 대중문화 속에 투영되어 나타난 여성 화자의 언

어로서의 노랫말을 살펴봄으로써 대중이 여성의 어떠한 목소리를 수용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빅데이터 기반의 국어정보학적 연구 기반이 확대됨에 따라 언어학 안에서도 다양한 분야 간의 융복합적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제까지 인문학 안에서도 문화콘텐츠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문학이나 문화학 전공자들이 주로 다루었으며 언어학자의 경우 언어 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말뭉치언어학적 연구에 있어서조차 문화콘텐츠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는 본격적으로 뛰어들지 않은 경향이 있었다. 이에 따라 문화콘텐츠에 나타난 언어적 현상을 언어학적 관점으로 분석하고 해석한 연구는 여전히 상당 부분이 공백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의 빅데이터 기반 융복합적 언어 연구의 패러다임은 향후 언어학의 관심 분야가 보다 다양한 장르와 분야를 포괄할 것을 지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한국 문화콘텐츠의 일종인 걸그룹 노랫말을 대상으로 하여 언어학적 분석 틀을 활용해 수행한 연구라는 점에서 인문학 안에서 학문의 경계를 뛰어넘는 융복합적 연구로서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선행 연구

노랫말에 대한 연구는 고전시가, 가곡, 전통민요, 동요, 찬송가 등,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대상으로 하여 비교적 폭넓게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대중가요의 노랫말에 대한 언어학적인 관점의 연구는 2000년대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는데, 노랫말에 나타난 언어 오용이나 정서법 실태에 관한 연구(김홍석 2007; 김홍석 2009), 노랫말에 나타난 코드 전환의 양상과 그 담화 기능에 관한 연구(강희숙 2016; 유세

인·박연희·남신혜 2023), 일제강점기 대중가요 가사 속 여성 지칭 명사의 특징을 분석한 연구(배샛별·이승연 2016), 노랫말의 음운 변화 현상에 대한 연구(서근영·홍성규 2019) 등이 있었다. 초창기에는 노랫말에 나타나는 언어 현상을 순화 혹은 계몽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인식에 근거하여 노랫말을 분석하고자 한 연구 경향이 나타났으나 최근으로 올수록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노랫말의 언어학적인 특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연구가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노랫말에 대한 계량언어학적 연구로는 김광해(1998), 김희정(2008ㄱ), 김희정(2008ㄴ), 안의정(2015), 김해옥(2016), 한성우(2018), 김해옥(2019) 등을 들 수 있다(길정준 2021 참고). 이 중에서 김광해(1998), 김희정(2008ㄱ), (2008ㄴ), 안의정(2015)의 경우 주로 192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의 노랫말을 다루고 있으며 김해옥(2016)과 김해옥(2019)에서는 1970년대부터 2000년까지의 노랫말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여 연구 대상 시기에 따른 차이가 발견된다. 특히 김해옥(2016) 이후로는 당대의 노랫말을 연구의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성우(2018)의 경우 1920년대 노래부터 2010년대 노래까지 총 26,250곡에 달하는 방대한 노래의 노랫말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로 국내에서 수행된 노랫말 분석 연구로는 가장 큰 규모로 볼 수 있으며 근대 가요 100년사를 거시적으로 조망한 연구라는 데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이제까지 살펴본, 노랫말에 대한 계량언어학적 연구를 길정준(2021:7)을 참고하여 정리해 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1〉 노랫말에 대한 계량언어학적 연구

주제	연구	형태소 분석	빈도 분석	공기어 분석	토픽 모델링	대상 시기	곡 수	어절 수
어휘	김광해 (1998)		O			1925~1945	437	
운율	김희정 (2007ㄱ)					1925~1969	669	
어휘	김희정 (2007ㄴ)		O			1925~1944	438	
텍스트	안의정 (2015)		O	O		1930~1943	437	28,539
리터러시	김해옥 (2016)	O	O			1970~2009		
어휘	한성우 (2018)	O	O	O		1923~2016	26,250	
어휘	김해옥 (2019)	O	O			1970~2009		
어휘, 토픽	길정준 (2021)	O	O	O	O	1970~2019	3,716	588,632

위의 표에 정리된 선행 연구들을 검토해 보면 초창기 빈도 분석 정도에 머물러 있던 것이 2015년 이후부터는 공기어 분석이나 형태소 분석, 나아가 토픽모델링에 이르기까지 분석의 범위나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는 경향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어휘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밖의 분야에서의 연구들은 몇몇 시범적인 연구 사례를 제외하고는 본격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 담화·화용론의 측면에서 화행 분석 연구나 노랫말에 나타난 운율구에 대한 음운론적 연구, 그리고 노랫말이 그 시대의 대중문화 현상을 담고 있다고 볼 때 그밖의 사회언어학적 연구도 시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처럼 다양한 언어학적 층위에서의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한국 대중가요 노랫말에 대한 연구가 이제까지보다 한층 풍성해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노랫말 속 여성에 관한 연구는 2010년대 후반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이른바 '케이팝(k-pop)'이라고 불리는 아이돌 중심의 한국 대중음악이 전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국내에서 '미투(Me, too) 운동' 등의 영향으로 인해 여성주의의 영향력이 확산되었던 복합적인 사회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경록(2016)은 걸그룹 음악의 가사 속 주제와 소재에 대해 분석하였고 김태룡(2020)은 걸그룹 음악 가사에 나타난 여성 화자의 태도를 연애 경험의 수용 및 발화 방식에 대한 접근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한편 이은화(2017)는 여성 가수의 노랫말이나 노랫말 속 여성에 관한 연구는 아니지만 여성 작사가 작품만을 따로 묶어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이들 연구들은 걸그룹의 노랫말, 혹은 여성 작사가의 노랫말에 대하여 여성 화자의 언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노랫말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유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수행된 연구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대다수가 연구자의 주관적 평정에 기대고 있는 주제 분석을 주된 연구 방법으로 삼고 있는바, 보다 객관적인 방법론을 도입한 계량적 연구의 필요성을 환기한다.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노랫말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으나, 여성 화자의 언어로서 노랫말을 바라보고, 이를 대상으로 한 국어정보학적 연구는 아직까지 미개척의 분야로 남겨져 있다.

3. 연구 대상 및 방법

이 연구의 범위는 1세대 아이돌의 출현으로 삼는 1996년부터 4세대 아이돌의 출현으로 삼는 2019년의 직전년도인 2018년까지 등장한 걸그룹들의 노랫말을 대상으로 한다. 케이팝의 아이돌을 대상으로 하는 많은 연구들에서는 이른바 '아이돌 세대론'을 차용하고 있는데, 주로 파급력이

높았던 주요 아이돌 그룹의 등장을 기준으로 하여 세대를 구분한다. 우선 1세대의 경우 넓게 보아 1990년대 중후반을 그 시작으로 보는데, 구체적으로는 H.O.T가 데뷔한 1996년부터를 케이팝 아이돌의 1세대로 본다. 다음으로 2세대의 경우 2000년대 중반 이후를 가리키는데 구체적으로는 동방신기가 데뷔한 2004년을 기준으로 설정한다. 마지막으로 3세대의 경우 폭넓게 보아 2010년대 이후를 가리키며 구체적으로는 EXO가 데뷔한 2012년을 기점으로 삼는다. 경우에 따라 2019년 이후는 이전의 3세대 아이돌과 구분하여 4세대 아이돌로 명명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8년까지를 3세대 아이돌로 보아 연구 대상에 포함한다. 4세대 아이돌의 경우 아직 그 세대 구분의 경계가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았으며 다른 세대에 비하여 비교적 짧은 기간이므로 양적 분석에 있어서 다른 세대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배제하였다. 이 기간 안에 들어오는 각 세대별 주요 걸그룹을 모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2〉 세대별 주요 걸그룹

세대 구분	주요 걸그룹
1세대 (1996년~2003년)	베이비복스, S.E.S, 디바, 핑클, 서클, 클레오, 티티마, 애즈원, 샤크라, 파파야, 쥬얼리, 밀크, 슈가 등
2세대 (2004년~2011년)	천상지희, 가비엔제이, 브라운아이드걸스, 씨야, 원더걸스, 카라, 소녀시대, 2NE1, 포미닛, 애프터스쿨, 티아라, f(X), 시크릿, miss A, 걸스데이, 씨스타, Apink, 브레이브걸스, EXID, AOA, 크레용팝 등
3세대 (2012년~2018년)	마마무, Red Velvet, 러블리즈, 라붐, 여자친구, 오마이걸, TWICE, 우주소녀, 아이오아이, BLACK PINK, 모모랜드, 드림캐쳐, (여자)아이들, 이달의 소녀, IZ*ONE 등

본 연구에서는 위의 표에 포함된 각 세대별 주요 걸그룹의 노래들 중에서 멜론 차트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연도의 상위 100곡 안에 포함되었던 인기곡을 대상으로 하여 그 노랫말을 스크래핑 기법으로 모아 말뭉치로 만들고 이를 대상으로 하여 언어학적 분석을 시도한다. 멜론 차트는

국내 가요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차트 중 하나로 대표성을 가지며 연도별로 100대 인기곡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이 데이터를 참고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모은 걸그룹 노랫말 말뭉치를 대상으로 하여 전처리를 수행한다. 기본적인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수정하고 형태소 분석기를 활용하여 파싱 및 품사태그 부착을 진행한다. 이때 형태소 분석기로는 바른(Bareun) 형태소 분석기를 활용하였다. 노랫말의 경우 각종 축약형 및 구어적 변이형의 출현이 빈번하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에도 높은 정확도를 유지하기에 적합하다는 점에서 바른 형태소 분석기를 선택하였다.

이렇게 구축한 형태분석 말뭉치를 대상으로 하여 아이돌 세대별 핵심어를 추출한다. 노랫말의 세대별 핵심어 분석을 통해 주요 내용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 양상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여성 화자의 주체성이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되는지 알아본다. 이를 위해서 명사, 대명사 등 체언 중에서 각 세대를 대표하는 주요 핵심어를 선정하되 출현 범위(range)를 그 기준으로 삼는다. 핵심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빈도(frequency)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지만, 노랫말의 특성상 운율을 맞추거나 후렴구에서의 효과를 위하여 특정한 어구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이 매우 빈번하게 관찰되기 때문에 빈도를 기준으로 삼을 때 타당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당 세대에 속하는 여러 노래들에 중복하여 출현한 단어가 해당 세대 노랫말의 내용상 경향을 더욱 잘 드러낸다고 보아 출현 범위를 기준으로 세대별 핵심어를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핵심어를 대상으로 하여 용례 분석을 통해 해당 단어들이 어떠한 문맥에서 사용되었는지 질적으로 들여다보되, 이를 위해서 경우에 따라 화행 분석과 연어 관계 분석을 추가로 수행한다. 이와 같은 절차로 수행된 연구의 결과는 이어지는 장에서 자세히 기술하도록 하겠다.

4. 노랫말 분석 결과

4.1. 세대별 주요 내용어

걸그룹의 노랫말을 세대별로 각각의 말뭉치로 구축한 뒤 해당 말뭉치들에서 주요 내용어를 체언을 대상으로 하여 선정하였다. 인칭대명사와 일반명사로 목록이 구성되었으며 각 세대별 말뭉치에서 출현 범위가 25% 이상인 단어들을 목록화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 3〉 세대별 주요 내용어

	1세대		2세대		3세대	
순위	체언	출현 범위(%)	체언	출현 범위(%)	체언	출현 범위(%)
1	나/NP	100.0%	나/NP	96.8%	나/NP	100.0%
2	사랑/NNG	79.2%	너/NP	88.4%	너/NP	92.8%
3	너/NP	75.0%	내/NP	51.6%	내/NP	50.5%
4	곁/NNG	50.0%	맘/NNG	50.5%	맘/NNG	47.7%
5	내/NP	50.0%	니/NP	46.3%	말/NNG	43.2%
6	모습/NNG	50.0%	말/NNG	45.3%	우리/NP	42.3%
7	마음/NNG	45.8%	사랑/NNG	40.0%	사랑/NNG	34.2%
8	맘/NNG	45.8%	눈/NNG	32.6%	뭐/NP	33.3%
9	속/NNG	45.8%	이제/NNG	31.6%	오늘/NNG	33.3%
10	우리/NP	45.8%	가슴/NNG	29.5%	눈/NNG	32.4%
11	그대/NP	33.3%	남자/NNG	28.4%	속/NNG	31.5%
12	날/NNG	33.3%	날/NNG	26.3%	시간/NNG	31.5%
13	때/NNG	33.3%	때/NNG	25.3%	날/NNG	30.6%
14	말/NNG	33.3%	속/NNG	25.3%	밤/NNG	30.6%
15	가슴/NNG	29.2%			때/NNG	29.7%
16	눈/NNG	29.2%			마음/NNG	26.1%
17	눈물/NNG	29.2%			니/NP	25.2%
18	니/NP	29.2%			이제/NNG	25.2%
19	사람/NNG	29.2%				

20	시간/NNG	29.2%	
21	언제/NP	29.2%	
22	이제/NNG	29.2%	
23	곳/NNG	25.0%	
24	꿈/NNG	25.0%	
25	느낌/NNG	25.0%	
26	조금/NNG	25.0%	

이 목록에 속한 단어들 중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바로 화자 자신을 가리키는 1인칭대명사('나/NP', '내/NP')라고 할 수 있다. 청자를 나타내는 2인칭대명사('너/NP', '니/NP') 역시 모든 세대에서 높은 순위로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인칭대명사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 걸그룹 노랫말에 나타난 여성 화자의 주체성 표현 양상을 들여다보는 데 있어 매우 핵심적인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일반명사의 경우 '사랑', '마음', '꿈', '느낌' 등과 같이 심리·내면을 나타내는 명사, '곁', '날', '때', '곳', '이제' 등과 같이 어떤 시간이나 공간을 나타내는 명사, 그리고 '말', '속', '눈' 등과 같이 주로 다른 말의 수식을 받는 자리에서 빈번하게 나타난 기타 피수식명사 등으로 나눌 수 있었다. 이어지는 절에서는 이 중에서 화자의 주체성 표현 양상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유형인 인칭대명사 및 사람 명사, 그리고 심리 및 내면을 나타내는 명사의 사용 양상에 대해서 세대별로 보다 구체적인 맥락과 함께 파악해 보기로 한다.

4.2. 인칭대명사 및 사람 명사의 사용 양상

4.2.1. 1세대 걸그룹 노랫말에서의 사용 양상

주지한 바와 같이 인칭대명사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어로 기능하고 있다. 우선 1세대 여성 아이돌 노랫말에 나타난 1인

칭 대명사의 사용 양상을 용례를 통해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가. 난 여전히 너의 여자야
나. 난 네 거야
다. 있잖아 나 언제까지 너에게 단 하나의 그녀가 되고 싶어
라. 나는 기다려 운명의 끈에 걸린 너만을 영원히
마. 나를 위해 힘겹게 널 내 곁에 두는 것보다 널 위해서 내가 떠날게
바. 내가 가진 것 모두 그댈 위해 드려요

(2) 가. 네가 있는 나 행복할 거예요
나. 내일이 오는 게 난 두려워 나의 그리움은 눈물로 잠들 테니까
다. 아직은 얘기할 수 없지만 난 있잖아 네가 정말 좋아
라. 보낼 수 없어 모른 척 웃고 있는 내가 싫어져
마. 난 오직 너를 위해 살고 싶어

(3) 가. 내가 원하는 대로 자신 있는 모습 그대로
나. 내가 느끼는 만큼 너 똑같다면 나를 피하지는 마

(1)의 용례들은 화자가 청자에게 무엇인가를 약속하는 행위를 표현하는 것으로 직간접적으로 언약 화행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1마)와 (1바)의 경우 화자가 청자를 위해서 청자가 바라는 대로 행동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언약의 행위가 잘 드러난다. (1가~1다)의 경우 표면적으로 진술문의 모습을 하고 있으나 화자가 앞으로 청자의 연인이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선언하는 방식으로 언약 행위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때 화자가 언약하는 내용은 모두 연인 관계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너의 여자', '네 거', '너에게 단 하나의 그녀' 등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자신에 대한 독립적 주체 의식보다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규정되는 자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2)의 용례들은 화자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정표

화행이 수행된 경우를 모은 것이다. (2가)는 '행복', (2나)는 '두려움', (2다)는 '사랑의 감정', (2라)는 자신에 대한 '증오', (2마)는 '희망'의 감정을 각각 표현하고 있다. 이때 긍정적인 감정들은 모두 청자와의 관계성을 전제하고 있으며 부정적인 감정들은 반대로 청자와의 관계 단절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단 1세대 노랫말의 경우에도 (3)의 경우에서처럼 (1), (2)에서와는 달리 여성 화자의 주체성이 드러나는 용례도 일부 발견된다. 그러나 그 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한편, 위의 표에서는 2인칭 대명사인 '너'와 그 구어적 실현형인 '니' 또한 전 세대를 아울러 공통적으로 넓은 범위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많은 노랫말들이 화자와 청자와의 관계를 전제한 상황에서 담화가 전개되고 있었으므로 화자의 주체성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청자와의 관계를 살핌으로써 추가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 가. 그렇게 너는 내게 해맑은 웃음만을 주는 또 하나의 나
나. 그런 너는 나에게 누구보다 그 어느 누구보다 소중해
다. 이젠 네가 알아주길 바랬어
라. 난 너를 기다릴게 네 마음 문을 열고 네가 오기를 내게 와주기를 언제나 나 그래왔듯이
마. 난 기다림의 끝에 네가 오는 날에 누구보다 더 환한 모습으로 말할게 널 사랑한다고
바. 언제나 둘이 함께 네가 있는 나 행복할 거예요

위의 2인칭 대명사가 사용된 용례들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청자가 화자에게 있어 추앙과 선망의 대상이라는 점이다. 화자는 청자에 대해서 '또 하나의 나(4가)'라든지 '어느 누구보다 소중'한 대상(4나)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청자에 대한 화자의 태도는 청자를 기다리는 것(4라, 4마)이

나 청자가 자신을 알아주기를 바라는(4다) 것과 같이 수동적인 모습으로 표상된다.

한편, 1세대 걸그룹 노랫말의 경우 '우리'와 '그대'라는 인칭대명사 역시 상대적으로 넓은 출현 범위에서 나타나고 있다. '우리/NP'의 경우 2세대 핵심어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았고 3세대 핵심어에는 속해 있으나 1세대에서 가장 넓은 출현 범위를 나타낸다(45.8%〉42.3%). 복수형 대명사인 '우리'는 화자를 포함한 화자 측의 여럿을 나타낼 수도 있고 화자가 청자와 자신을 묶어 아울러 표현할 때 쓰일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용법 중에서 1세대 걸그룹 노랫말에는 모두 후자의 용법, 즉 화자가 청자를 자신의 편에서 아울러서 지칭하는 용법만이 관찰되었는데 이때 화자와 청자는 아래 예문 (5)에서와 같이 연인 혹은 파트너 관계로 상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를 통하여서도 1세대 걸그룹 노랫말에서는 화자가 청자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파악하고자 하는 경향이 동일하게 관찰된다고 할 수 있겠다.

(5) 가. 시간이 흐르고 우리 같은 집에서 사는 날 나의 꿈을 이루는 그 날까지
나. 먼 훗날 우리 눈감는 날까지 지금처럼 네 사랑 내 곁에 함께 해 줘
다. 우리 둘이 영원히 함께 같은 공간 속에 아픔이 많더라도 괜찮아
라. 가끔가다 우리 싸울 때도 있겠지만 우리 언제나 즐거울 수 있을 거야
마. 당신과 걸어가면 보이지 않던 미래도 너무 밝게 우리를 비춰주기 때문에
바. 연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영원한 시간 속에 우리 둘만의 특별한 얘길 함께 나누어 봐요
사. 우리가 영원히 저세상 끝까지 함께 할 수 없음이 슬플 뿐이야

한편, ‘그대/NP’는 1세대 노랫말에서만 비교적 폭넓게 출현하고 있으며(33.3%) 이후 세대의 노랫말에서는 거의 관찰되지 않는다. ‘그대’가 2인칭 대명사로서 [+존중]의 의미를 더해준다는 점을 상기할 때 1세대 노랫말의 화자들은 주로 자신의 연인 관계로 표상되는 청자에 대해 존중과 추앙의 정서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았음을 알 수 있겠다. ‘그대’가 사용된 용례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6) 가. 그대와 내 인생 저 끝까지
나. 난 알고 있어 언제나 그대 내 곁에 와 잠드는 걸
다. 그대에게 줄게요 나의 모든 사랑을
라. 그대를 지키고 싶어
마. 그대의 기억이 엔드 엔드야
바. 나 어떡해 그대를 너무 사랑해
사. 그대가 주인이죠

4.2.2. 2세대 걸그룹 노랫말에서의 사용 양상

2세대 걸그룹의 경우에도 화자가 자신을 나타내는 1인칭 대명사와 상대방을 지칭하는 2인칭 대명사는 상당히 폭넓게 사용되고 있었다. 우선 1인칭 대명사의 사용 양상 중에 앞선 1세대에서 나타났던 전형적인 화자의 모습과 유사하게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인식하며 상대방을 선망과 추앙의 대상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아래와 같은 예문이 확인되었다.

(7) 가. 나는 어떡해 어떡해 네가 가면 난 어떡해
나. 나는 니가 난 니가 난 너무 좋은걸
다. 그대 눈빛이 나는 참 맘에 드네요
라. 나는 네 모든 게 좋아

마. 너의 바람이 분다면 나는 바람에 날려가
바. 네 세계로 내가 들어가게 나에게로 다가와 줘

이러한 노랫말은 앞선 세대 걸그룹 노랫말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났던 화자의 자기 표현으로서 상대방을 칭찬하고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선망하는 마음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발화된 것(7가~마)이거나 요청 화행이 실현된 것(7바)으로서 화자의 주체적인 모습이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다. 한 편으로는 아래 용례들과 같이 화자가 청자를 원망하는 마음을 드러내며 스스로는 피해자의 위치에 있음을 드러내는 용례들도 확인된다.

(8) 가. 나는 기다리는데 너는 왜 못 오는데
나. 나는 정말 너만 좋아했던 시간을 놓아버리고 싶어
다. 어쩌다 어쩌다 어쩌다 널 사랑하게 됐는지 내가 왜 이 꼴이 됐는지
라. 여리여리 착하던 그런 내가 너 때문에 돌아 내가 독한 나로 변해 내가
마. 네 옷깃에 묻은 립스틱들 나는 절대로 용서 못 해

그러나 2세대 노랫말에서는 이러한 모습뿐만 아니라 화자가 자신의 주체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여러 용례들이 확인되었는데,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9) 가. 미안하지만 내가 정리해 줄게
나. 널 내가 내가 갖겠어
다. 남들처럼 내가 저 끝까지 데려갈게
라. 너의 Genie 내가 들어줄게
마. 더 멋진 내가 되는 날 갚아 주겠어
바. 내가 어떻게든 좀 손보겠어

사. 그만해 너 니 멋대로 많은 걸 나는 바라진 않아
아. 내가 내가 니 거란 착각 좀 하지 마

2세대 노랫말에 나타난 특징적인 양상 중 하나는 위의 용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청자와의 관계 속에 나타나는 화행 중에 언약 화행(9가~바)이나 금지 화행(9사~아)이 상당수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살펴보았던 1세대 노랫말의 경우 화자가 청자의 연인이 되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언약 화행이 주를 이루었던 것과 달리, 2세대 노랫말에 나타난 언약 화행의 경우 화자가 주도적인 위치에서 시혜 행위의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금지 화행에서 화자가 자신의 주체성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용례도 다수 확인된다.

무엇보다도 이 세대 걸그룹 노랫말에서 가장 빈번하게 확인되는 문장은 바로 화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규정짓는 내용의 문장들이다. 이전 세대의 노랫말에서 청자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거나 청자와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파악하고자 하는 양상이 나타났던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용례는 굉장히 많았는데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아래와 같다.

(10) 가. 달라 달라 나는 너무 달라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나. 나는 누구보다 예뻐
다. 나는 색다른걸
라. 나는 내 멋대로 내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 같은 모습 같은 옷은 너무 싫어 나는 달라
바. 내가 그렇게 예쁘니
사. 내가 지나갈 때마다 고개를 돌리는 남자들
아. 널 위한 내가 아니야
자. 내가 이슈 이슈 이슈 내가 보는 것들까지

차. 내가 모든 것을 다 컨트롤
카. 누구보다 내가 내가 I'm on the top
타. 내가 하면 그게 Trendy hot style
파. 내가 내가 바로 섹시 아이콘
하. 내가 제일 잘나가

위의 용례들은 모두 화자가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자기 인식을 나타내는 것 자체가 발화의 목적인 것으로, 화자가 자기에 대한 인식을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는 점과 나아가 그 긍정적인 인식을 거리낌 없이 뽐내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 화자의 주체적인 자기 인식이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세대 노랫말에는 한발 더 나아가 화자가 자신의 주체성을 보다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노랫말들도 일부 관찰된다. 해당 용례는 아래와 같다.

(11) 가. 원하면 내가 사
나. 웃기지 마 나는 내 맘대로
다. 왜 내가 왜 도대체 왜 니 말을 듣는데 Why

위의 용례에서는 자기 인생의 주도권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있음을 직접적으로 나타냄으로써 화자의 주체적인 모습을 직접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제까지 살펴본 바를 정리해 보면, 2세대 걸그룹 노랫말에서는 이전 세대에 전형적으로 나타났던 것과 같이 상대방과의 관계속에서 스스로를 위치시키려 하는 의존적이며 소극적인 여성 화자의 모습과 더불어 긍정적인 자기 인식을 가감없이 드러내거나 청자와의 관계 속에서도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의 1인칭 화자의 모습이 혼재되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4.2.3. 3세대 걸그룹 노랫말에서의 사용 양상

마지막으로 3세대 걸그룹의 경우 이전 세대 걸그룹의 노랫말에서도 관찰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화자가 자기 스스로에 대한 인식을 표현하거나 과시하는 맥락에서 등장한 용례가 상당수 관찰되었다. 여기 해당되는 예문은 아래와 같다.

(12) 가. 나는 남자 없이 잘 살아
나. 나는 함부로 날 안 팔아
다. 나는 좀 다를걸
라. 나는 그대의 귀여운 고양이
마. 어서 나타나 봐 나는 다 준비가 됐지 Ready
바. 난 미지의 세계
사. 난 하늘 아래 떨어진 별
아. 그래서 난 내가 떳떳해
자. 내 차 내 옷 내가 벌어서 산 거야
차. 내가 좀 쉽진 않지
카. Hey 너무 이뻐 보여 내가 뭐를 입든지
타. 짧은 치마를 입고 내가 길을 걸으면 모두 나를 쳐다봐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과 자신감을 내보이는 이러한 진술문들은 이전 2세대에서도 빈번히 등장한 바 있으나 3세대에 오면 자신을 나타내는 서술들이 보다 폭넓고 다양해졌다는 점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위에 (10)의 용례들 중 대다수가 자신의 외적인 아름다움이나 매력을 과시하는 내용의 진술이었던 것에 비해 (12)에서는 (12카)나 (12타)와 같이 외적인 아름다움을 과시하는 것도 있지만 '미지의 세계(12바)', '하늘 아래 떨어진 별(12사)' 등과 같이 보다 다양한 내용으로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표출하고 있다.

3세대 걸그룹 노랫말에서 또 한 가지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은 청자에 대해서 '허용'이나 '시혜'를 베푸는 것과 같이 화자의 주체성이 매우 분명하게 드러나는 맥락이 자주 관찰된다는 것이다. 이에 해당되는 용례들은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었다.

(13) 가. 원하는 대로 해 나는 그게 편해
나. 내가 더 많이 좋아해도 상관없어
다. 내가 챙겨줄게
라. 내 품은 너에게 피난처

(13가)와 (13나)는 '허용'의 맥락을, (13다)와 (13라)는 '시혜'의 맥락을 보여준다. 상대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허락하거나 베푼다는 것은 자신을 상대방보다 우위에 있거나 적어도 더 나은 형편에 있다고 인식하는 화자가 보일 수 있는 태도라는 점에서 위와 같은 용례들에서 화자의 주체성이 잘 드러나고 있다고 하겠다.

인칭대명사의 사용 맥락과 관련하여 3세대 걸그룹 노랫말에 나타나는 특징 중 추가적으로 언급할 것은 바로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전제로 하는 상황에서 상대방 역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태도를 표현하는 것이다. 앞서 1세대 걸그룹 노랫말의 경우에 상대방을 선망이나 추앙의 대상으로 놓고 있음을 보여주는 맥락이 많이 관찰되었음을 기술한 바 있다. 3세대 걸그룹 노랫말에서 역시 상대방에 대한 찬사의 긍정적 표현들이 다수 등장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이 경우 1세대에서와는 달리 기본적으로 화자 자신에 대한 높은 인식을 전제한 상태에서 청자를 칭찬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엿보인다. 아래 용례들이 모두 여기에 속한다.

(14) 가. 나만 보는 남자들 많고 많고 많은데 네 전화만 기다리는 바보 같은 나는 뭐니

나. 철옹성 같은 내가 흔들려
다. 나 쉬운 여자 아니에요 전화번호 뭐예요 시간 좀 내줘요
라. 내가 아님 안 되는 남자 많고 많은데 네가 숨기고 쓰는 문자가 더 신경 쓰여

한편, 3세대 노랫말에는 1세대 노랫말에서 관찰된 바 있으며 2세대 노랫말에서는 거의 등장하지 못했던 복수형 인칭대명사 '우리'가 다시금 등장하였다. 다만, 이 시기의 '우리'는 이전 1세대 시기에서의 쓰임과는 달리 연인 관계를 상정하지 않은 '우리'를 나타내는 용례들도 관찰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발견된다.

(15) 가. 이 밤이 다 가도록 우리 모두 난리 나
나. 바다야 우리와 같이 놀아
다. 태양은 우릴 놀리고 아스팔트 온도 50도 Wow
라. 그런 게 우리의 천재적인 파워야

위의 용례들은 모두 '우리'가 '연인 관계인 화자와 청자'가 아니라 '잘 노는 우리', '여름을 즐기는 우리' 등과 같이 로맨스 관계를 전제하지 않는 복수의 일단을 표상한다.

4.3. 심리·내면을 나타내는 명사의 사용 양상

위의 〈표 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전 세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주요 어휘들 중에 인칭대명사 및 사람을 나타내는 어휘 외에도 유의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단어는 바로 심리 및 내면을 나타내는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들이다. 이 단어들은 앞 절에서 살펴보았던 인칭대명사와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고 특히 전 세대의 노랫말에서 모두 출현 범위가 비

교적 넓은 주요 단어들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1~3세대 걸그룹 노랫말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주요 단어 목록에 속한 단어들로는 '사랑'과 '마음/맘'이 있었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이들 단어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용 맥락을 연어 관계를 통해서 확인해 보기로 한다.

4.3.1. '사랑'의 세대별 사용 양상

1세대 걸그룹 노랫말에서 심리 및 내면을 나타내는 의미와 관련된 단어로는 '사랑, 마음, 맘, 가슴, 눈물, 꿈, 느낌'이 있었다. 여기에서는 이들 단어들이 사용된 맥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세대별로 '사랑'의 출현 범위는 아래 표와 같았다.

〈표 4〉 세대별 '사랑'의 출현 범위

세대	1세대	2세대	3세대
출현 범위(%)	79.20%	40.00%	34.20%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사랑'은 1세대에서는 거의 80%의 곡들에서 출현하였으나 그 출현 범위가 2세대에서는 40%로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으며 3세대에서는 더 떨어져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한성일(2018, 2020)에서는 대중가요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로서 '사랑'을 꼽고 있을 만큼 노랫말에서 폭넓게 사용되어 온 '사랑'은 걸그룹 노랫말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단어 중 하나로 나타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비중은 점차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앞서 인칭대명사에 대한 기술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1세대에서 2세대를 지나 3세대로 올수록 걸그룹 노랫말 속 여성 화자가 주로 연인이자 선망의 대상으로 상정되는 청자와의 관계 속에서만 자신을 규정짓던 모습에서 탈피하여 스스로의 주체성을 모색해 나가게 되는 양상과 관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사랑'의 연어 분석을 통하여 다시금 확인해 볼 수 있는바, 아래 표는 각 세대별 말뭉치에서 '사랑'과 유의미한 수준의 공고한 연어값을 보이는 단어들을 t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목록화한 것이다.

〈표 5〉 세대별 '사랑'의 연어

순위	1세대		2세대		3세대	
	연어	t점수	연어	t점수	연어	t점수
1	의/JKG	5.46	나/NP	3.95	ㄴ/ETM	4.62
2	나/NP	4.52	너/NP	3.43	의/JKG	3.71
3	던/ETM	2.85	의/JKG	3.37	나/NP	3.63
4			아/EC	2.81	너/NP	3.52
5					에게/JKB	3.03
6					마지막/NNG	2.59

위의 표를 보면 1세대의 경우 '사랑'의 좌측에서 연어로 판명될 만큼 고빈도로 나타난 인칭대명사는 '나'만 있었던 것과 달리 2세대와 3세대에서는 인칭대명사 '나'와 '너'가 모두 출현하고 있었다. 다만 1~3세대 모두 관형격 조사 '의'가 높은 빈도로 '사랑'의 좌측에서 결합하고 있는 양상이 나타났으므로 '의'의 좌측에 나타나는 인칭대명사는 무엇인지를 추가로 조사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사랑'의 좌측 문맥에 나타나는 인칭대명사를 조사 '의'가 개재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모두 아울러 세대별로 살펴본 결과 1인칭과 2인칭의 비중은 아래 표와 같았다.

〈표 6〉 세대별 '사랑' 수식어의 인칭

구분	1세대		2세대		3세대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1인칭	29	88%	22	76%	11	65%
2인칭	4	12%	7	24%	6	35%
합계	33	100%	29	100%	17	100%

위의 표를 보면 1세대의 경우 '사랑'의 관형어 자리에 나타난 인칭대명사 중 1인칭이 절대 다수인 88%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러한 양상은 점차 완화되어 2세대의 경우 76%로 낮아졌고 3세대에 와서는 65%까지 현격히 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즉 1세대에서는 '사랑'의 소유주가 화자 자신이며 사랑의 대상은 청자였던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이러한 양상은 2세대와 3세대로 세대가 진화되어 올수록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아래 예문과 같은 실제 용례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16) 가. 그대에게 줄게요 나의 모든 사랑을
나. 모든 내 사랑을 다 주고 싶은 너
다. 기다려왔던 나의 사랑은 너를 위한 거야
라. 레몬 빛 향기로 나의 사랑을 눈뜨게 한 너

(17) 가. 나의 사랑은 달라
나. 나의 사랑의 깊이도 깊어져가
다. 그땐 우리 사랑은 The end
라. 무심한 너의 사랑에 난 지쳤어

(18) 가. 말하지 못한 나의 사랑
나. 나의 사랑은 너로 시작해
다. 태양보다 빨간 너의 사랑의 색깔
라. 너의 사랑은 나의 손에

위의 예문 (16)~(18)은 각각 1세대, 2세대, 3세대 노랫말에 나타난 '사랑'의 용례들이다. 1세대의 경우 (16)에서와 같이 화자가 자신의 사랑을 청자에게 주고 싶다고 고백하는 내용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화자 스스로가 자신의 사랑을 대상화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이와 달리 2세대의 경우 (17가), (17나)와 같이 화자가 자신의 사랑 그 자체를 대상화하

는 것이 아니라 주제화하여 진술하고 있는 모습에서 보다 주체적인 화자의 모습이 표상된다. 또한 (17다)와 같이 1인칭 대명사라 하더라도 '나'가 아닌 화자와 청자를 아우르는 '우리'를 수식어로 함으로써 '화청자 공동의' 사랑을 표현하는 모습도 관찰된다. 마지막으로 3세대의 경우 '나의 사랑(18가, 나)'에 대한 진술 양상과 '너의 사랑(18다, 라)'에 대한 진술 양상에 별다른 차이가 관찰되지 않는다.

4.3.2. '마음/맘'의 세대별 사용 양상

두 번째로 살펴볼 단어는 '마음'과 그 음운론적 축약형인 '맘'의 사용 양상이다. '마음'과 '맘'의 세대별 출현 범위는 아래 표와 같다.

〈표 7〉 세대별 '마음/맘'의 출현 범위

구분	1세대	2세대	3세대
맘/NNG	45.80%	50.50%	47.70%
마음/NNG	45.80%	N/A	26.10%

세대별 양상을 보면 1세대 노랫말에서는 '마음'과 그 축약형인 '맘'이 동등한 비중으로 사용되었던 것에 비하여 2세대와 3세대에서는 오히려 축약형인 '맘'이 '마음'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어느 변이형이 사용되었든지 전 세대에서 '마음/맘'은 상당히 높은 출현 범위를 보이고 있으며 그 출현 정도에 있어 큰 차이는 발견되지 않는다.

'마음'과 '맘'의 세대별 연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8〉 세대별 '마음/맘'의 연어

순위	1세대		2세대		3세대	
	연어	t점수	연어	t점수	연어	t점수
1	의/JKG	4.55	의/JKG	9.62	의/JKG	10.12
2	나/NP	3.86	나/NP	9.00	나/NP	9.31
3	ㄴ/ETM	2.80	야/EF	5.07	ㄴ/ETM	3.76
4			dot/nng	3.77	너/NP	3.36
5			ㄴ/ETM	3.50	이런/MMD	3.27
6			이/VCP	3.49	는/ETM	3.17
7			이/JKS	3.39	그립/VA	2.82
8			니/NP	3.29		
9			이야/JX	2.80		

위의 표를 살펴보면 전 세대에서 '마음/맘'의 좌측 위치의 연어로 가장 지배적인 것은 역시 관형격조사 '의'와 1인칭 대명사 '나', 그리고 관형형어미인 '-ㄴ'으로 파악된다. 이에 이들 세 형태소가 실제로 사용된 용례를 중심으로 그 사용 맥락을 추가로 살펴보았다. 아래 예문은 순서대로 1세대, 2세대, 3세대의 용례를 보여준다.

(19) 가. 그러니 이제 내 맘 가져가
나. 영원히 내 곁에 내 맘을 떠나지 마
다. 들어봐 언제까지 내 맘에 하나뿐인 소중한 그 사람
라. 불 꺼진 내 맘을 다 채워주었던 완벽한 네 모습

(20) 가. 변치 않을 사랑으로 지켜 줘 상처 입은 내 맘까지
나. 야릇야릇한 널 향한 나의 맘 들리니
다. 왜 이렇게 자꾸 내 맘을 애태워
라. 이제 네 맘대로 해 난 미련은 버릴래

(21) 가. 내 맘 깊은 곳 증폭되는 시너지
나. 네 맘 벽을 뚫고 자라난다 특별한 경험 Rum Pum Pum Pum
다. 내 맘 흔들 흔들어
라. 저 달도 내 맘 알까

이들 '마음/맘'의 용례들에서도 앞에서 살펴보았던 '사랑'의 사용 맥락과 유사한 양상이 포착된다. 1세대의 경우 (19)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마음/맘'의 소유주는 거의 항상 화자 자신이 되며 이때 화자의 마음은 청자가 가져가기를 바라는 대상이 되거나(19가) 청자가 머무르는 처소(19다), 또는 청자가 채워주어야 하는 대상(19라)으로 표상되고 있다. 이와 달리 2세대에서 화자의 마음은 이전 세대와 비슷하게 청자가 지켜주길 바라는 대상으로 표상되기도 하지만(20가) 자신의 마음을 상대적으로 주체적으로 표현하는 용례도 발견되며(20나, 다) 상대방을 책망하는 문맥에서 나타나기도 한다(20라). 마지막으로 3세대의 경우 청자에게 주고 싶은 대상도 아니며 청자와의 관계만을 위한 대상도 아닌 것으로서의 '마음'이 표현되는 양상이 보다 뚜렷하게 관찰된다. 이상과 같이 '마음/맘'의 사용 문맥의 변화 양상을 통해서도 걸그룹 노랫말에 나타난 여성 화자의 주체성이 변화해 나가는 양상을 목격할 수 있다.

5. 결론

이제까지 세대별 걸그룹 노랫말에 나타난 여성 화자의 주체성 변화 양상을 언어학적으로 관찰하여 분석하여 보았다. 이를 위하여 노랫말 말뭉치를 구축한 뒤 출현 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세대별 주요 내용어를 선별한 후, 해당 어휘들이 사용된 맥락을 화행 분석과 연어 분석의 방법으

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세대가 거듭하여 올수록 걸그룹 노랫말에 나타나는 여성 화자의 모습은 점차 주체적인 모습으로 진화하여 온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노랫말에 나타난 여성 화자의 모습에 대한 선행연구(김태룡 2020)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서, 문화콘텐츠의 내용 분석에 있어서 언어학적 분석의 결과가 유의미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겠다.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 대중음악 위상의 세계적인 상승과 걸그룹의 문화적 영향력 확대라는 사회문화적인 배경에서 언어학 역시도 인문학적 아젠다와 관련된 주제의식을 발굴하고 이에 동참할 필요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된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한국 걸그룹 노랫말에 나타난 여성 화자의 주체성 변화에 대한 언어학적 탐색이라는 시의적 주제에 대한 언어학적 탐구 방법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였다는 데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강현구·고훈준, 「K-POP의 음악 패턴 분석」, 『디지털융복합연구』 11(3),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13.

강희숙, 「K-pop 노랫말의 코드 전환 양상 및 담화 기능」, 『호남문화연구』 60, 전남대학교 호남학 연구원, 2016.

고정민, 『한류,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서울: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2009.

길정준, 「한국 대중가요 노랫말의 텍스트 특징 연구」, 경희사이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1.

김광해, 「일제 강점기의 대중가요에 대한 계량언어학적 연구: 유성기 음반 채록본을 중심으로」, 『한국어 의미학』 3, 1998.

김민석, 「방탄소년단(BTS) 작품 가사분석」,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2.

김병호, 「K-Pop 아이돌 음악에 나타난 저항의식의 과거와 현재 – 90년대와 2010

년대를 중심으로」, 『대중음악콘텐츠』 5(1), 2021.
김영진·임소희·박영재·손승우, 「국내 대중가요 노랫말을 바탕으로 한 작사가 네트워크 분석」, 『New Physics』, 68(6), 2018.
김영환·윤보미·김선정, 「대중가요 가사를 통한 학교와 교육에의 시사점 연구: 방탄소년단 노랫말 분석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12), 2021.
김이진, 「한국대중음악 노랫말에서 나타나는 선정성기준의 시대적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5(1), 2007.
김중신, 「그룹 "들국화" 노랫말의 시학적 의미」, 『문학교육학』 50, 2016.
김진규·정기인,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의 노랫말 속 사랑의 의미」, 『대중음악』 28, 2021.
김진이, 「K-Pop의 형성과 음악적 특성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김진효, 「아이돌 그룹 소속사별 가사의 특징 고찰」,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2.
김태룡, 「한국 걸그룹 음악 가사의 주제 양상과 여성 화자의 태도 – 여성 연애 경험의 수용·발화 방식에 대한 통시적 접근」, 『문화콘텐츠연구』 18, 2020.
김해옥, 「언어문화 교육을 위한 한국 대중가요 분석」, 『언어와 문화』 12(2), 2016.
_____, 「한국 대중가요 분석과 언어문화 교육을 위한 활용」, 『언어와 문화』 15(3), 2019.
김홍석, 「대중가요 노랫말 속의 정서법 소고」, 『한어문교육』 17, 2007.
김홍석, 「20세기 후반 대중가요 노랫말의 오용 실태」, 『새국어교육』 83, 2009.
김희정, 「한일유행가의 남성을 나타내는 어휘의 비교고찰 – 1925년부터 1960년까지를 중심으로」, 『日本語學研究第20輯 韓國日本語學會』, 2007.
_____, 「한일유행가의 성별을 나타내는 어휘의 비교고찰 – 1925년부터 1960년까지를 중심으로」, 『日本近代學研究第 1 8輯 韓國日本近代學會』, 2007.
남신혜, 「SNS 텍스트에 나타난 코드스위칭의 담화 기능」, 『사회언어학』 23(1), 한국사회언어학회, 2015.
박준언, 「K-pop 노랫말 코드전환의 기저언어 설정」, 『이중언어학』 54, 이중언어학회, 2014.
_____, 「K-pop 노랫말들의 언어 혼종: 영어 변이형들과 코드전환 사용」, 『이중언어학』 61, 2015.
배샛별·이승연, 「1945-1959년 한국 대중가요 가사의 특징 – 사랑과 이별의 정서를 중심으로」, 『음악과 민족』 51, 2016.

배샛별·이승연, 「일제 강점기 사랑과 이별 소재 대중가요 가사 속 여성 지칭 명사의 특징」, 『대중서사연구』 22(3), 2016.

서근영, 「K-Pop 노랫말의 운율구조 변화 현상: 댄스음악을 중심으로,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4(7),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2020.

서근영·홍성규, 「K-Pop 노랫말의 음운 변화 현상」, 『언어학』 27(4), 2019.

안서윤·박재록, 「K-Pop 댄스음악의 곡 형식 변화 연구: 1991년부터 2020년까지 멜론차트 상위권 댄스음악을 중심으로」,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6(6),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2022.

안의정, 「계량적 접근에 의한 1930-40년대 대중가요 어휘 연구」, 『어문논총』 63, 2015.

안효정, 「케이팝(K-Pop) 가사 기반의 한국어 교수요목 설계 연구」, 경희사이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2.

오경록, 「한국 걸그룹음악의 역사와 주제와 소재에 대한 고찰」,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유세인·박연희·남신혜, 「K-pop 노랫말에 나타난 코드스위칭의 담화 기능: 96년부터 22년까지, 아이돌을 중심으로」,『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제36차 춘계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2023.

이상욱, 「K-pop 노랫말의 특성 연구」, 『한국문학과 예술』, 16, 숭실대학교 한국문학과예술연구소, 2015.

이승연·장민호, 「K-pop 음악의 글로벌 성공 요인 분석」,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3(4),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2019.

이은화, 「한국 대중가요에서 여성작사가 작품의 주제 및 소재에 관한 고찰」,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장유나, 「국내 시대별 아이돌의 음악적 특징과 대중적 영향력 변화 양상 고찰」,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차우진·최지선, 「한국 아이돌 그룹의 역사와 계보, 1996-2010년」, 『아이돌』(이동연 엮음), 서울: 이매진, 2011.

판위안쥔, 「케이팝 아이돌의 가사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한성우, 『노래의 언어: 유행가에서 길어 올린 우리말의 인문학』, 어크로스, 2018.

_____, 「대중가요 가사의 품사별 빈도에 따른 특성 고찰」, 『대중음악』 26, 2020.

한성일, 「대중가요에 쓰인 영어 가사의 기능 연구」, 『텍스트언어학』, 29, 한국텍스트언어학회, 2010.

홍연주, 「한국 대중가요 노랫말의 특성에 관한 담론」,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5(1), 2011.

Lee, J. S.(2004) Linguistic Hybridization in K-Pop: discourse of self-assertion and resistance, 『World Englishes』 23(3), Blackwell Publishers, 429-450.

Abstract

Linguistic Exploration of the Changes in Female Speaker Subjectivity in Korean Girl Group Song Lyrics

Nam, Sin-hy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inguistically observe and describe the changes in female speaker subjectivity within the song lyrics of Korean girl groups across different idol generations. To achieve this goal, a corpus of song lyrics was constructed, and key content words were selected based on their range of occurrence across generations. The context in which these words were used was then examined through discourse and collocation analyses. The results revealed that as generations progressed, the portrayal of female speakers in girl group song lyrics evolved towards a more assertive representation. This finding supports previous research on the representation of female speakers in song lyrics and highlights the significant role of linguistic analysis in the examination of cultural content. This study serves as a noteworthy example, emphasizing its significance in shedding light on the evolving portrayal of female speakers in the domain of music and culture.

Keywords : Idol Groups Categorized by Different Generations, Korean Girl Groups, Song Lyrics, Female Speaker Subjectivity, Corpus Analysis.

* Kyung Hee University

남신혜
전자우편 : namsh@khu.ac.kr

논문 접수일 : 2023. 07. 26.
심사 완료일 : 2023. 09. 15.
게재 완료일 : 2023. 09. 30.